

불안해지는 출판의 입장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출판저널》에도 소개된 바 있지만, 움베르토 에코는 최근 계속해서 “정보화시대라 하더라도 책은 살아남는다. 특히 문학서는 책으로서 남는다”는 말을 정력적으로 하고 있다. 나도 그렇다는 생각이고, 또 꼭 그러기를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란 원래 게으르기 때문이다. 필요한 지식조차도 보다 정확하고 밀도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책을 섭렵하지 않는다. 고명한 학자도 태반은 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손에 쉽게 잡힌 문헌을 이용해 논문을 쓰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 정보화기술은 사실상 서비스 기술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것도 그저 막대한 목록을 한데 모아 보여준다는 정도가 아니다. 컬러모니터에 장거리 통신까지 합세해서 상당한 문헌들을 문장별로 색인해서 나열해준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한두권 들쳐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책을 찾아보는 결과를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결국 책읽기의 상당부분을 컴퓨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읽기란 매우 힘든 노동이다. 어떤 자세로 읽든 몇 시간을 계속 읽기는 어렵다. 눈도 피로해진다. 그리고 TV나 컴퓨터와 달리 중독증 단계로 가지도 않는다. 하긴 어떤 소설은 밤새워 읽도록 사람을 유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젊은 날 한때에만 그렇

다. 그래서 읽기 훈련은 어떤 책을 읽느냐가 아니라 읽는 그 자체를 괴롭게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 조건 역시 책이 살아남는 데 장애가 된다. 초등교육과정부터 단속적이나마 책 읽기 훈련이 안된 사람은 너무나 손쉽게 책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교육은 스스로 책읽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국어교과서 한권마저도 시험문제가 될 문장만 뽑아 읽힌다.

그런가 하면 아직 우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교육텍스트들이 점점 더 CD-ROM화하고 있다. 미국 교육계는 지금 CD-ROM 텍스트에 열광하고 있다. 교육공학자들도 문자와 영상과 음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CD-ROM 텍스트보다 더 환상적인 교재가 어디에 있는가 강조한다.

이를 요약하면 멀티미디어의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체제가 된다. 책은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효용성과 유용성에서 멀티미디어와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겨우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 경쟁에 책이 아직도 남겨지고 있는 힘은 교양적 독서라는 항목이다. 고전 사상서들, 문학에서도 교양적 소설들, 그리고 철학적 사색서들은 때로 책 그 자체로서 서가에 꽂아두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교양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 책들을 컴퓨터 디스크트로 '갖고 있다'고 말하는 데는 앞으

로도 상당기간 더 큰 혁명적 변화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책읽기 교육도 없고 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인지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는 움베르토 에코의 전망이 매우 빠르게 틀린 것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출판저널》 지난해에 게재된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서 나는 그 증세가 벌써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느꼈다. 일일이 목록을 다시 나열할 것도 없이 교양도서 목록은 베스트셀러 50위에서도 사라졌다. 대단치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성공담까지도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는 인터넷·컴퓨터·외국어배우기들이 들어섰다. 이 책은 실은 독서했다고 말할 책들도 아니다. 기능적 독서라고는 하지만 이때 독서는 필요에 의한 목적적 읽기이다. 큰사이를 읽고 독서를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출판의 태도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기능적 도서들은 교양적 도서를 내듯 점잖은 출판으로는 이제 성공하기 힘들다. 멀티미디어 서비스개념에서 더욱 철저하게 서비스적으로 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게임이다.

그리고 교양적 도서들은 질과 품위와 미적 감수성까지 호소하는 하나의 작품창조의 노력으로 내야 할지 모른다. 그래야 독창적 특수성으로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96호/1996년 7월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민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허연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욱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88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1세기퍼블리싱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出版社 賣買・仲介”

出版社買入

판권·필름·원고
잔고·재고매입

斗星文化

서울·종로구 송인2동 202-10
(서용빌딩 207호)

TEL : (02) 232 - 0348~9
FAX : (02) 233 - 0403

—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